



삶을 사랑하며 |

동화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던 아련한 기억



| 편사범 / 동화구연 아버지회 회장

우 리 가정은 온 가족이 전국 동화구연대회에서 입상한 동화구연 가족이다. 나는 지난 91년 제 1회 전국아버지동화구연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그 후로 동화구연 아버지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아내도 나의 뒤를 이어 동화구연을 배워, 92년 색동회 주최 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서 은상을 탔다. 올해 대학 3학년인 딸 지영이 역시 전국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아들 승원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96년에 전국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을 정도로 동화구연에 재주가 남다르다. 승원이는 우리 부부의 동화구연활동 영향으로 일찍 동화의 세계에 눈을 뜨긴 했지만 원래부터 말을 잘했던 것은 아니다. 나이에 비해 말을 배우는 것이 늦었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할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동화구연활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지도를 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움츠러드는 아이가 발표력도 좋아지고 성격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언어능력 강화가 아이들의 재능을 높여 주고 학습능률을 높인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정에서의 대화 못지않게 동화구연을 해줄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주 토

요일마다 '3분 드라마' 시간을 정해놓고 지영이와 승원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구연을 할 때는 평소 쌓인 불만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원님은 승원이 하고 하인은 아버지가 맡는 식으로 빛이 나는 역할을 일부러 아이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매주 모여 역할극을 하고 동화구연을 한 승원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틈만 나면 반 친구들에게도 재미있고 구수한 동화를 들려준 덕분에 인기도 얻었다.

공연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연습을 할 때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거나 밤에 잠꼬대를 하기도 하는 승원이가 공연연습이 귀찮을 때도 있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면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는다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여간 대견 한 것이 아니다. 모든일에 능동적이고 모험심도 강하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나 노력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 역할도 흔들리고 있다. 농경시대의 가부장적 가정 구성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화하면서 아버지는 밖에서 돈이나 열심히 벌여 주부에게 송금만 하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돈 버는 기계, 집

에 돌아와서는 잠이나 자고 나가는 하숙생으로 전락하게 될 경우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절름발이 가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가정의 화목과 자녀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동화 속에 잠들면서 미래를 꿈꾸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아련한 기억속에서 가정의 중요성과 화목을 실감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교훈적인 교육 동화나 옛 위인의 얘기를 동화구연으로 재구성해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주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자녀와의 애정이 더욱 더 돈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동화를 통한 가족간의 대화는 가족의 사랑을 더욱 두텁게 해주며 또 자녀와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탈선이나 가정불화의 예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겐 미래의 꿈이 중요하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자라는 아이는 그 싹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냥 먹고 자라는 신체적인 성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미리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PPFK